

김수자 풍피두센터 개인전

2015/10/26 김정선 기자



국제갤러리는 26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김수자 작가의 개인전 '투 브리드(To Breathe)가 프랑스 메츠 풍피두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빛과 공간, 영상과 소리를 조화시켜 공간을 탐구해온 작가의 작품을 보여준다.

작가는 전시장 양쪽에 있는 유리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바닥에 흩어지고 반사되도록 작품을 구성했다.

뉴욕, 파리,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는 김수자는 평면, 설치, 퍼포먼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이며 이주, 피난, 전쟁, 문화적 충돌, 정체성 등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